

# 성서의 관점에서 본 遠藤周作의 『스캔들』\*

安 增 煥\*\*

(e-mail : ajw7340@hanmail.net)

## <目 次>

- |                |          |
|----------------|----------|
| 1. 들어가기        | 4. 구원의 빛 |
| 2. 무의식과 의식의 충돌 | 5. 나가기   |
| 3. 인간의 실존적 한계  |          |

キーワード: 両面性(double-sided), 無意識(unconscious), 影(shadow), 悪(evil), 他力の救い(power saving)

## 1. 들어가기

엔도 슈사쿠(遠藤周作, 1923~1996, 이하 엔도)는 기독교 선교의 불모지로 일컬어지는 일본에서 기독교 작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한 작가다. 『침묵』이나 『깊은 강』만이 아니라, 그의 소설은 어느 하나 기독교라는 종교색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소설뿐만 아니라, 텍스트 안에도 나와 있듯이 그는 『그리스도전(キリスト伝)』이나 『사자(使者)』 외에도,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의 생애』 『나의 예수』 등 기독교와 관련된 비소설류도 다수 남기고 있다.

그러한 엔도에게 『스캔들』은 그의 이미지를 끝없이 실추시키고도 남을 무모한 작품이었다<sup>1)</sup>. 사디스트나 마조히스트 같은 변태성애자들이 등장하고 있

\* 본 논문은 2016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지원비에 의해 수행된 것임

\*\* 한남대 일어학

1) 山田道公(2001) 「『スキャンダル』の原題「老いの祈り」の意味するもの」『三田文学』80(67), 慶応義塾大学出版会, p.66. 다음은 山田가 엔도의 『스캔들』 해제를 쓰면서 혼자 했다는 질문이다. 「あなたは、多くの読者のあなたにもつイメージをあえて傷付けるこの小説を、どのような思い

고, 작가 자신을 투영시킨 주인공 스구로는 어린 여학생의 몸을 더듬는다. 때문에 노벨문학상 후보군에 들어갔을 때, 심사위원 중 하나가 포르노 같은 소설을 쓰는 작가라고 한 것이 탈락원인의 하나가 되었다는 유명한 일화도 남겨놓은 작품이다. 이 『스캔들』을 높게 평가한 사람은 가톨릭 문학과들과 가와이하야오(河合隼雄)처럼 옹의 심리학을 전공하는 이들뿐이었다고까지, 가토 무네야(加藤宗哉)는 말한다<sup>2)</sup>.

그런데 왜 엔도는 그러한 무모한 도전을 했을까? 엔도의 소설이라면 반드시 읽겠다는 독자가 만 명 이상 확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인해 독자의 상당수가 이탈하리라는 것을 작가 자신이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품을 쓰게 된 배경은 결국 크리스천이라는 그의 정체성과 관계된다고 보여 진다. 가와시마 히데카즈(川島秀一)는 엔도의 문학여정을 세 단계로 정리한다<sup>3)</sup>. 초기 단계에서는 죄의식이 결여된 일본인의 정신구조를 문제 삼고 있으며, 『침묵』 등으로 대표되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배신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과 그런 자들까지 포용해 주는 어머니 같은 하나님(母なる神)을 그려왔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스캔들』의 나루세 부인 등에 의해 묘사되는 대로 악의 실체와 그런 인간에게도 구원은 가능할까 하는 문제를 던지고 있다는 것이다. 『스캔들』에 대한 가와시마의 이러한 논평이 성서적 관점에서 입증될 수 있을지를 보는 것도 이 작품의 객관적 분석에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스캔들』은 작가 엔도 자신을 소설 속 주인공 스구로에 투사시킨 일종의 사소설로, 엔도 자신은 사소설보다는 ‘자기옹시소설’이라고 규정한다<sup>4)</sup>. 결국 나루세 부인에 의해 확인된 악의 문제가 자신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인식하면서 그것으로부터의 해방의 길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필자가 『스캔들』을 엔도의 정체성과 관련지은 배경이다.

주지하는 바대로, 엔도의 기독교 귀의는 자의적 선택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이혼한 어머니가 위로를 받을 겸 이모의 권유로 성당에 나가기 시작했을 때 어린 엔도도 어머니를 따라 성당에 다닌 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서양종교

で執筆しておられたのか」

- 2) 加藤宗哉(2006) 『遠藤周作』, 慶應義塾大学出版会, p.209
- 3) 川島秀一(1993) 『遠藤周作 愛の同伴者』, 和泉書店, p.220
- 4) 西谷博之(1997) 『スキャンダル』 『遠藤周作—その文学世界』, 国研出版, p.270 재인용.

인 기독교가 일본인인 그의 몸에 딱 맞지는 않았지만, 외형적으로 그는 확실한 크리스천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외형을 뛰어넘어 내면의 자아까지를 스스로도 인정할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어 하는 구도자로서의 당연한 꿈이 엔도에게는 있었다. 사실 『스캔들』은 ‘외형적’이라는 수식어를 떼어내고 싶어 하는 크리스천 주인공 스구로의 처절한 싸움을 묘사하면서 엔도가 이해한 기독교의 교의를 소설화시킨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이 소설은 이렇게 전개된다. 주인공 스구로의 문학적 업적을 축하하는 어느 수상식 자리. 65세의 나이에 나름 자신의 문학세계가 완성되었다는 보람을 느끼고 있던 수상식장에서 스구로는 청중 사이에서 자신을 닮은 얼굴 하나를 발견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자신을 닮은 그 사내가 변태성애자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작가로서 자신의 이미지에 엄청난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고, 그래서 절대 자신이서는 안 될 그 사내를 찾아 나서는데 만나보니 결국은 그 가짜가 자기 자신으로 판명되는 미스터리적 내용으로 스토리가 구성된다. 당연히 여러 명의 주변 인물이 등장하면서 플롯을 돕는다. 우연히 공원에서 밭을 밟은 것이 계기가 되어 집필실 알바를 시키게 된 여중생 모리타 미쓰. 65세 노인이 된 스구로한테 젊음에 대한 질투 같은 미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전람회에서 만난 중년의 나루세 부인. 스구로의 소설을 읽는 다면서 작가로서 성을 깊이 다루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스구로의 무의식에 동요를 일으킨다. 크리스천 작가로서 거룩한 척하는 스구로에게 체질적으로 반감을 지닌 르포라이터 고바리. 시중의 소문대로 스구로에게 분명한 약점이 있을 것을 확신하며 미행하다가 스구로가 미쓰를 데리고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을 포착한다. 그리고 고바리로부터 문제의 사진을 사서 자포자기에 빠진 스구로를 구해주는 출판사 사장 등등이다.

이 작품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가와이 하야요(河合隼雄, 1986)나 김은영(2002)처럼 용의 원형이론에 의한 분석이 일반적이었다. 이것은 엔도의 창작노트 등을 통해 충분히 지지받을 수 있는 접근이라고 본다. 한편 필자가 『스캔들』을 성서적 관점에서 고찰하려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 엔도의 창작동기는 성서적 관점에서 우선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혐오할만한 또 다른 자기의 출현에 당황하면서 그것을 해결하려는 스구로의 처절한 모습, 그리고 결국은 숨겨진 자신의 추한 실상만을 확인하고 절망하는 결과나,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 등등 소설의 전개가 성서에 근거하

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인물로 등장하는 나루세부인이나 르포라이터 고바리, 출판사 직원 구리모토나 출판사 사장 등의 소설 속 기능이 너무 성서적이어서, 작가 엔도의 의도가 확인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엔도는 지금까지 쌓아온 그의 문학세계에 엄청난 충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이 소설을 반드시 써야 했다고 본다. 필자는 이 점을 성서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 2. 무의식과 의식의 충돌

『스캔들』에는 이중인격, 다중인격, 이중신(二重身), 분열증 등 심리학적 용어들이 많이 등장한다. 이것들은 모두 이 작품의 해석에 중심적인 키워드로 작용하는 인간의 ‘양면성’을 묘사하기 위한 것으로 작품의 구성에 깊이 관여한다. 양면성은 무질서한 상태로 존재하는 무의식이 표출되면서 의식과 충돌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무의식을 성서에서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sup>5)</sup>, 엔도는 작품 안에서 이것을 잘 차용하고 있다. 다음은 나루세 부인이 결혼하기 전 어렸을 때 남편 될 사람인 도시오(俊夫)한테 들은 말이다.

「人間の心のなかは、どうなっているか知っているかい」とある日、俊夫は不意にわたくしに訊ねました。少女のわたくしには答えるのが、むつかしい質問でした。「人間の心のなかには幾つもの部屋があるんだよ。その一番奥にある部屋には万里ちゃんの家納戸とおなじように、色々なものがたくさんしまっている。でも真夜中になると、そのしまったまま忘れられたものが動き出すんだ」 (137)

어느 날 갑자기 도시오가 나한테 ‘인간의 마음속이 어떤지 아니?’하며 물었어요. 소녀인 제가 대답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였지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많은 방이 있단다.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방에는 마리 너희 집 수납장처럼 이것저것 잔뜩 들어있지. 하지만 한밤중에 되면, 푹푹 묶인 채 잊어졌던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도시오의 말은 사람 마음속을 묘사하고 있다. 여러 개의 방이 층층을 이루고

5)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4:23)

있고 가장 깊은 곳은 마치 창고 안처럼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으며, 그것들이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어떤 특정한 때가 되면 움직인다는 것이다. 무의식의 존재와 더불어, 움직일 수 있다는 무의식의 속성을 보여준다. 이 무의식이 움직여서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의식과의 충돌이 발생하고, 그때 양면성이라는 문제가 부각된다. 엔도는 작품 안에서 이 양면성 이해를 위해 프로이드의 무생물적 상태, 융의 그림자 원형, 대승불교의 유식론(唯識論), 선악불이(善惡不二) 등을 차용하는 한편, 인간의 양면성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시키고 있다. 이 양면성은 무의식이 표출되면서 기존의 의식과 병존할 수도 있고, 의식에 의해 통제되면서 억제될 수도 있다고 한다. 『스캔들』에 나타난 무의식의 표출과정 유형을 등장인물에 따라 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는 중년의 나루세 부인형이다. 이 유형은 극단의 경우로 의식과 무의식이 아무런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병존한다. 융의 원형이론에 의하면 의식의 자아가 무의식의 그림자를 전혀 상관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다. 나루세 부인은 남편이 죽은 후에 허무함을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마조히스트인 이토이 모토코(糸井素子)와 변태적 성관계를 갖는다. 어느 날 이토이가 자살하겠다고 정확한 일시와 장소를 알려주었는데도 그것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이토이 하숙집 가까운 찻집에 앉아 그녀의 죽어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음미했다고 한다. 말리지 않았느냐는 스구로의 질문에 나루세 부인은 이렇게 답한다.

「でも、それはあの子の悦びでしょ。あの子の生き甲斐はつまらない毎を送ることも、街頭画家として客を待つことでもなくて、あの衝動に身を任せる時だけですもの。渦のなかに溺れて死んでいくのが彼女のただひとつの悦びで生き甲斐なら、どうして止められます？ もっともその日の夕方、わたくしは彼女の下宿のすぐ近くまで行きました」 (235)

‘하지만 그건 그 애의 낙인 걸요. 그 애의 보람은 쓸데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나 길거리 화가로서 손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런 충동에 몸을 맡길 때뿐이라고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 갔다가 죽는 것이 유일한 낙이고 사는 보람이라면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하긴 그날 밤, 저는 그 애 하숙집 아주 가까이까지 갔습니다.’

자살이 모토코에게 환희고 보람이라면 왜 말려야 하느냐는 나루세 부인의 말에 스구로는 내심 경악하면서 『스캔들』에서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는 ‘악

(惡)’을 생각한다. 스구로는 악을 지금까지 그의 소설에서 다루었던 ‘죄’와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죄는 그것이 어떤 유형이 되었든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의 소설에서 그려왔는데, 악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엔도는 『스캔들』에서 새롭게 등장시킨 이 악이라는 것도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혹을 강하게 품는다. 그런데 스구로는 앞에서 보았던 나루세 부인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그녀의 모습을 보고 질겁한다.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돌보던 아이가 수술을 위해 수술실로 들어가자, 그 아이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를 올리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나루세 부인의 상충되는 이러한 두 모습은 스구로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넘고 있었다.

「祈っているんですか、あなたが……」

「ええ、祈らないではいられなくて。馬鹿ですわね、自分の子でもないのに、わたくし」(193)

‘기도하고 있나요? 당신이 ……’

‘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서요. 바보지요, 나? 내 자식도 아닌데’

결국 나루세 부인형은 전혀 다르게 보이는 두 세계를 정신적으로 아무런 충돌 없이 살아가는 유형으로, 작가는 극단적인 쾌락을 경험하고자 자살도 마다 않는 이토이 모토코 역시 이 유형에 넣고 있다. 성서에서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하면서 배척하고 있는 바<sup>6)</sup>, 크리스천인 스구로로서도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스구로가 부인과 함께 나가사키에 갔을 때 만난 노신부형이다. 이 유형은 나루세 부인과는 정반대 쪽에 있는 또 하나의 극단적인 유형으로 의식이 무의식을 완전하게 통제함으로써 무의식의 그림자가 드러나지 못하는 형태다. 스구로는 아내와 함께 나가사키로 여행을 떠났다가 마침 일요일이 끼어서 성당에 미사를 드리러 간다. 그 성당의 신부님은 이 교회에 온지 40년이나 되는 노신부로 스구로와는 옛날 취재차 나가사키에 왔을 때 일면식이 있는 사이였다. 이 신부님의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를 처음 만나는 스구로 아내마저도 ‘저런 인생도 있네요(ああいう人生ってあるのね)’하며 감동할 만큼 순전했다. 스구로 역시 자신과 비교하면서 나이로는 별 차이가 없겠지만 티 없는

6)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약4:8)

미소에서 묻어나오는 개구쟁이 같은 맑은 인상에 부러움을 느끼면서, 저런 신부가 죽은 뒤에 가는 세상은 나루세 부인이나 모토코 같은 사람이 가게 될 세상과는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한다.

あの神父は幾歳だろう。六十五歳の自分より五、六歳は上かもしれない。あと何歳生きるのだろうか。神父は死んだあと、あの大きな楠の根もとに埋められ、そして死んだあと海を眺め、腕白小僧が走りまわるのを眺め、鶏の鳴声を聞くのだろうか。そこには成瀬夫人や糸井素子の世界はひとかけらもない……。 (189)

그 신부는 몇 살일까? 65세인 나보다 5,6세 위일지도 모르겠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 그 신부는 죽은 뒤, 저 녹나무 밑에 묻힐 테고, 죽은 뒤에도 바다를 바라보면서 개구쟁이들이 뛰노는 모습도 보고 닭 우는 소리도 들겠지. 거기엔 나루세 부인이나 이토이 모토코가 있을 수 있는 세계는 눈곱만큼도 없을 거야…….

소설 『스캔들』은 『노인의 기도(老いの祈り)』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큰 수술 경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지금도 정기적으로 의사한테 간 검진을 받고 있는 65세 스구로의 처지에서 ‘노인의 기도’란 결국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다가 아내와 자식들이 보는 가운데 죽어 신의 품에 안기고 싶어 하는 것을 의미한다<sup>7)</sup>. 그러나 지금 무언가에 쫓기고 있는 스구로의 노년은 결코 아름다울 수도 없고, 따라서 노신부의 맑은 모습이 그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한편 이 소설의 등장인물 가운데 노신부형에 속하면서 스구로가 부러워하는 인물로 자신의 아내와 여중생 모리타 미쓰가 있다. 스구로는 아내를 자기와는 달리 그 신부님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보고 있으며, 여중생 미쓰를 보면서도 노신부님처럼 나중에 자기와는 거리가 먼 하늘나라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어린 미쓰는 순진무구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간과하지 못하는 아이인데 반해, 그 아이를 보는 자신의 내면은 젊음에 대한 질투 등으로 복잡하게 요동치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窓が白むまで何度も彼女の看病をうけながら彼はこの少女もあの老神父とおなじように—今の自分には遠い神の国に行くにちがいないと心から思った。 (214)

7) 『스캔들』이 출간된 것은 엔도가 63세 때로, 소설의 주인공인 65세의 스구로와는 차이가 있다.

창밖이 밝아올 때까지 수없이 그 애의 간호를 받으면서, 그는 이 아이도 틀림없이 그 노신부처럼 지금의 자신으로서는 멀기만 한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으로는 나루세 부인의 남편인 나루세 교수형이다. 이 유형에서는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다. 의식의 자아가 무의식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의식 안의 그림자가 표출되면서 갈등을 일으킨다. 나루세 교수는 학계가 인정하는 우수한 학자였고, 대학 시절 교수의 영향으로 세례도 받은 사람이다. 그는 온화하고 도련님처럼 얌전한 사람이었는데 부부간의 성생활에서는 난폭하고 탐욕스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나루세 교수의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의 이면에는 그의 무의식 안에 숨겨진 그림자가 자리 잡고 있었다. 전쟁에 징집되어 장교로 복무하던 중, 여자와 아이들 수십 명을 한 집에 가둔 채 불을 질렀고 뛰어나오는 어린 아이를 총으로 쏘아 죽였던 사건이다. 나루세 부인은 남편을 이렇게 회상이다.

時には弟のようにさえ見えるこの夫のなかに、そうした別の男の影が存在していたこと、そしてその矛盾した二つのものが自分の夫をつくりあげていたことははじめて知って、わたくしは衝撃と共に快感さえ味わったのです。(150)

때로는 동생처럼 느껴지던 남편 안에 그러한 또 다른 남자의 그림자가 존재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모순된 두 모습이 내 남편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충격과 함께 쾌감도 맛보았어요.

남편의 모순된 이중성에 충격과 함께 쾌감을 느꼈다는 나루세 부인의 진술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수용태도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나루세 교수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양심이라는 도덕성이 작용하면서 죄의식으로 인해 더 깊이 숨어버리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벗어나려는 또 다른 행동과 연결될 수 있다. 당시 잔인한 학살현장에 있었던 나루세 교수의 옛날 전우들이 위령회를 만들어 모금을 하고 그 마을에 공양탑을 세우려는 움직임이 그런 예에 속한다.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로 칭의(稱義 justification)와 성화(聖化 sanctification)라는 말이 있다. 칭의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건이고,



성화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인간이 하나님<sup>8)</sup>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성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로, 나루세 교수형에 속하면서 노신부의 유형을 지향하는 부류로 볼 수 있다. 『스캔들』의 작가 엔도나 작품 속의 주인공 스구로 역시 그러한 크리스천이므로, 이 소설은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의식과 무의식의 갈등을 묘사하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과정에 있다는 말 자체가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sup>9)</sup>, 이상과 현실 혹은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 많은 갈등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갈등은 심하면 자아분열상태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지금 스구로는 변태성욕자로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가짜 스구로를 찾아내서 자기 자신, 그리고 끈질기게 자신을 쫓고 있는 르포라이터 고바리로 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한다. 그러나 사실 그 가짜는 다름 아닌 스구로의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스구로의 그림자일 뿐이다. 자주 죽음을 생각할 만큼 나이를 먹은 스구로가 르포라이터 고바리에게 쫓기면서도, 어리고 순진한 여중생 모리타 미쓰를 대할 때마다 그 아이에게 묘한 감정이 느껴지는 것을 발견하고 단테의 신곡(神曲) 첫 구절을 기억해 내는 것은 자신에 대한 절망에서 오는 탄식이다. 스구로는 그러한 자신의 실상에 탄식하면서 두 번이나 이 구절을 되뇌는다.

われ人生の半ばにして、道を失い、暗き林に迷い

나는 인생 절반을 넘어섰는데도, 길을 잃고 캄캄한 숲속을 헤매는구나.

필자가 『스캔들』을 성서적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배경이 여기에 있다. 자기의 무의식 속에 있는 또 다른 자기 즉 용이 말하는 부(否)의 그림자가 있음을 알고 탄식하는 장면이 그대로 성서에 나타나 있는 바, 그것은 실존적 존재로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8) 기독교의 신을 한국어 성서에서는 하느님 혹은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있다. 가톨릭에서는 전자로, 개신교에서는 후자로 번역되어 있다.

9) 이때의 ‘완성’을 기독교에서는 영화(榮化 glorification)라고 해서 모든 죄나 죄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가리킨다.

### 3. 인간의 실존적 한계

신약성서 로마서는 기독교 교리를 세우는 데에 절대적 인물로 평가되는 바울의 서신으로, 로마서 7장에는 바울이 자기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자기로 인해 괴로워하며 탄식하는 장면이 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롬7:18~23)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가 자신에게 맡긴 사역을 묵숨 걸고 수행해온 사람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바울이 없었더라면,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될 수 없었을 거라고도 한다. 그러한 바울이 자기 안의 또 다른 자기가 있음을 알고 탄식하고 있다. 자신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자기 안에 또 다른 자기가 있어서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게 하고 절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선을 행하려는 주체란 의식의 자아이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주체인 죄는 그의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그림자가 된다. 필자는 성서적 관점에서 앤도의 『스캔들』이 바울의 이 로마서 7장을 소설화시켜 놓은 것으로 본다. 선과 악의 단순한 갈등으로 고뇌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한 바울에 대해, 앤도는 성에 대한 유혹과 젊음에 대한 질투로 대상을 명시해 놓았다는 차이는 있지만, 바울과 앤도의 ‘자기응시’에는 간과할 수 없는 공통점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때 무엇보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자기응시에 관한 시점이다. 로마서는 바울의 전도 사역 거의 마지막 시점에 기록된 것이고, 앤도는 『스캔들』에서 주인공 스구로의 나이를 65세라는 노년으로 설정시켰다는 점이다. 두 경우 모두 크리스천으로서 확고한 정체성이 확립된 시기에 각자가 자기응시를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바, 이것은 곧 인간 실

존의 문제에는 나이와 무관하게 죄와 악이 깊이 관여된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크리스천 작가로서 엔도는 우선 이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앞에서 인용한 바울의 로마서 부분이 엔도의 『스캔들』에서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통해 작가의 창작 의도에 보다 가까이 접근해 보기로 한다. 포르노 같은 소설이라고 혹평까지 받았던 『스캔들』에 역설적으로 성서의 성구가 무려 여섯 번이나 인용되고 있어 그 콘트라스트가 흥미롭고, 수상식장에서 ‘스구로의 좋은 점은 자기 종교 때문에 문학을 회생시키지 않은 점’이라고 했던 가노의 치하와는 역설적으로 종교색이 짙은 플롯이 대조적이다.

어떻든 스구로는 자신의 문학과 인생에 보람과 자부심을 맘껏 느끼고 있던 수상식장에서 뜻하지 않게 자기를 닮은 얼굴과 조우한다. 그 수상식은 크리스천 작가로서 그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자리였고, 스구로 자신도 자신의 문학세계가 정립되었다는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한 자리였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를 닮은 사람이 나타나서, 네가 어떤 인간인지 자신을 잘 살펴보라는 듯이 비웃는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젊지만 천박해 보이는 거리의 여류화가 한 명이 다가와서 거드름피지 말고 솔직해지라면서 스구로 당사자만이 아니라 주변을 당혹스럽게 만든다. 그녀로부터 자기의 초상화가 전시되고 있다는 곳을 찾아가 확인한 초상화는 역겹고 음란해 보여서 절대 스구로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될 그림이었다. 바울은 이것을 ‘죄’라고도 하고 있고 ‘악’이라고 하고 있는데, 스구로는 그런 것들과 자기를 분리시키려고 쫓는다.

소설에서는 이러한 스구로의 갈등에 개입하는 두 사람이 나타난다. 하나는 잡지사 르포라이터 고바리이고 다른 하나는 나루세라는 중년부인이다. 고바리는 학생 때부터 스구로가 크리스천 작가라는 것 자체가 싫었다. 크리스천 작가는 무언가 위선적이고 이중인격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무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상식장에서 가두화가 이시구로가 스구로를 당황케 하는 장면을 포착하고는 반드시 스구로의 실체를 파악해서 망신을 주겠다는 일념으로 집요하게 뒤를 밟는다. 니시타니 히로유키(西谷博之)는 고바리를 스구로의 양심을 나타내는 또 하나 그의 그림자라고 했지만<sup>10)</sup>, 크리스천으로서 스구로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려는 세상의 눈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어찌 되었든 쫓기는 스구로 쪽에서는 큰 부담이 되는 존재임에는 틀림없다. 한편 스구로

10) 전게서, 西谷博之(1997) p262

가 그 전시장을 찾아갔다가 만나게 되는 나루세라는 부인은 스구로의 무의식 안에 잠재되어 있는 관심사를 알고 아주 능숙하게 스구로를 유혹한다. 분석심리학 관점에서 접근하는 이들은 나루세 부인을 스구로의 아니마로 보는데, 나루세 부인은 65세 노년인 스구로의 내면 깊숙이 숨겨진 관심사가 성(性 sex)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 나루세 부인은 자기도 모르는 가장 깊은 비밀을 보여주는 것이 성인데도, 스구로는 그 성을 항상 죄와 결부시킬 뿐 성의 깊은 데는 손을 대지 않는 한계가 있다면서 스구로의 무의식을 자극한다. 스구로는 어려서부터 종교적 영향으로 건강한 성과 건강하지 못한 성을 구분하고 있었지만, 그의 무의식은 이미 업소를 드나들면서 여자와 놀아나고 있고, 무의식의 반영이라는 꿈에서는 자기 사무실 알바를 하게 된 여중생 미쓰의 팬티만 입고 있는 것을 엿보기도 했었다<sup>11)</sup>.

내면의 갈등을 빨리 정리해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의지와 잠재된 욕망 속으로 점점 더 빠져 들어가려는 무의식의 움직임 사이에서 스구로의 삶은 피폐해져 간다. 이 갈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다. 욕망의 원인이 무의식에 있음을 알고 프로이드와 융, 그리고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무의식을 공부하고 프로이드의 심리학자 도오노를 만나 사람에게는 무의식에 대한 향수가 있다는 말도 듣는다. 스구로가 이 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그의 내면의 욕망이 결국 크리스천인 그로서는 반드시 정리해야 할 죄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는 죄가 무의미한 것만이 아니라 죄에는 한계가 있어서 한쪽으로 탈출구를 찾으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소설에 써왔었다. 하지만 과연 지금 본인의 이중적인 행태도 과연 죄의 영역에 들어가 구원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갖는 것이다. 이것은 스구로가, 자신의 내면의 문제는 단순히 구원이 가능하다고 했던 죄의 영역에 묶이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혹과 죄의식 사이에서 갈등하는 스구로에게 두 가지 행동양상이 나타난다. 하나는 자신을 숨기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신부나 아내 같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다. 스구로는 강연회 때 자신과 똑같은 사내가 청중 사이에 섞여 있었다는 말을 아내에게 안 한다. 병원에서 나루세라는 부인을 만났다는 아

11) ‘스캔들’에는 주인공 스구로의 꿈 다섯 개가 등장한다. 이것들 각각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과 관련해 분석할 수 있는 것들로, 가령 여중생 미쓰를 본 꿈은 본능의 지배를 받는 원초아로서 쾌락을 추구하는 이드(Id)를 나타낸다.

내의 말에 지레 놀라고, 아내가 무언가 눈치를 챌 듯이 혹시 숨기고 있는 것 없느냐고 두 번이나 물어오는데도 없다고 답한다. 감추는 것이 부부간의 평화를 깨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 온 것이 허탈했고, 뒷날 자신의 추한 실체가 다 드러나서 알게 되었을 때의 아내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밝힐 수는 없었다. 말없이 걸려오는 전화에 불안해하며 아무도 없는 좁은 집필실을 피난처로 삼아 숨는다. 자연스러운 귀결이지만, 스구로는 아내나 나가사키에서 만난 노신부 같은 사람들을 부러워한다. 그들에게는 자기와 같은 내적 갈등 같은 것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대화를 나누다 5분도 채 안되어 잠이 들어서 조용한 숨소리를 내고 있는 아내가 부러웠다. 아내는 자기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졌고 죽을 때도 자는 것처럼 이렇게 편안히 갈 것 같았다. 마찬가지로 스구로는 나가사키에서 개구쟁이처럼 맑은 노신부를 보고서도 아직도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헤매고 있는 자신의 삶이 싫었다. 모두가 자기와는 달라 보였던 것이다. 소설가로서 인간의 가장 어두운 곳까지 들어가 보아야 한다고 자위하면서 가짜를 쫓고 있고 한편으로는 고바리한테 쫓기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변명의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스구로 스스로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 행세를 하는 가짜를 만나게 해주겠다는 나루세 부인의 말에 기대를 건다. 반드시 확인해서 그와 자신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다.

드디어 가짜와 대면할 날이 왔다. 나루세 부인과 약속한 호텔로 간다. 이 날을 위해 자신은 모든 추문과 고독을 견뎌왔다. 이제 자신의 명예를 회복시킬 일만 남았다. 308호실에는 나루세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고, 들여다보라는 옆방에는 여중생 미쓰가 침대에 엎드려 있었다. 왜 저 아이를 데려왔느냐는 스구로의 격한 반응에,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며 미쓰에 대한 당신 마음은 단지 돕고 싶다는 생각뿐이냐고 반문한다. 사람에겐 누구나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옛날 군중들이 예수를 죽인 것도 그가 너무 깨끗했기 때문에, 그런 그가 십자가에서 당하는 괴로움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고 싶었던 군중들의 심리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스구로 당신은 지금까지 한쪽만 보고, 다른 한쪽은 외면해버린 위선적인 작가였다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라는 것이다. 이제 당신의 가짜와 만나게 해주겠다면서 작은 구멍으로 옆방을 들여다보게 한다. 억지로 마신 술기운을 의지해 들여다보니, 발가벗은 채 누워있는 미쓰를 어느 새 나루세 부인이 만져주고 있었고, 또 잠시 후에는 등의 커다란

수술자국이 자기의 것과 똑 같은 사내가 미쓰의 몸을 더듬고 있었다. 이때 스구로한테는 분노의 감정과 함께 소녀의 몸에서 나는 신선한 생명의 소리를 빨아들이고 싶다는 격한 감정이 어우러진다. 그리고는 마침내 스구로 자신이 그 사내와 하나가 되어서 미쓰의 몸을 여기저기 빨며 생명력 넘치는 젊음을 탐한다. 자신과 가짜의 경계를 확실히 정해놓고 둘이 절대 같을 수 없다고 부인하면서 자신으로부터 가짜를 떨구어내려고 했던 것이 결국은 하나로 판명된 것이다. 둘 모두가 스구로 자신으로, 스구로 안에서 통합되는 순간이다. 그러곤 이 둘이 하나가 되어 젊음에 대한 질투와 통제하기 어려운 쾌감에 취하다가 얼떨결에 미쓰의 목을 조르려 한다. 사망에 이르는 길이다. 성서는 죄의 삶은 사망이라고 했다<sup>12)</sup>. 그 순간, 자신도 알지 못하는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 정신을 차린 후, 미쓰를 데리고 호텔을 나오는데 고바리의 카메라 셔터가 번쩍한다. 자기 안의 악을 잘라내려고 나름 노심하며 싸워왔던 스구로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면서 모든 것은 드러나고 추악한 실체만이 확인되는 순간이다, 여기에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스구로의 절규가 탄식하는 바울의 절규와 동일하게 인간 실존의 한계로써 오버랩한다.

「憐れみたまえ……心狂える人間を憐れみたまえ」 (27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7:24)

## 4. 구원의 빛

종교학에 자력구원과 타력구원이라는 말이 있다. 불교나 힌두교처럼 스스로의 수행 등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종교를 자력구원 종교라 하고, 기독교처럼 신이 먼저 사람을 찾아와 구원을 베푸는 종교를 타력구원 종교라 한다. 엔도는 『스캔들』에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지할 수는 있어도 스스로의 힘으로 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기독교의 구원관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다.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스구로는 자신의 실존적 존재에 절망하지만, 그래도 살아야 한다는 생각과 살기 위해서는 무언가 구원의 실낱을 찾아야 한다는 의식이 움직

12) 로마서6:23

이고 있었다.

長年のあいだ勝呂は小説を書きながら、どんな人間の陋劣ななかにも救いの徴を見ることのできると思ってきた。どんな罪にも再生のエネルギーがひそかに鼓動をうっていると信じてきた。だからこそ照れながらも自分をクリスチャンだと信じることができた。だが今日からはこの醜惡を自分のものと認めざるをえない。醜惡のなかにも救いの徴を見つけないければならない。(273)

스구로는 오랫동안 소설을 써오면서, 아무리 비열한 인간이라 해도 그 안에서 구원의 조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 어떤 죄가 되었든 재생의 에너지가 슬그머니 고통치고 있다고 믿어왔다. 때문에 부끄럽지만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믿었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 추악한 모습이 바로 자신의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제 이 추악한 모습에도 있을 구원의 조짐을 찾아내야만 한다.

추악 가운데에서도 무언가 구원의 징조를 찾아야 한다는 스구로의 의지의 이면에는 지금까지 그의 소설에서 기술해 온 대로 죄는 어떤 것이 되었든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에 근거한 것으로, 나루세 부인의 극단적인 이중성을 보고 죄와 악을 구분했던 것은 스구로 자신의 이중성 확인으로 인해 의미가 없어졌다. 물론 미쓰의 목을 조르려고까지 했던 자신의 추악한 실상이 여타의 소설에서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던 죄와는 분명 차이가 있지만 지금 스구로에게는 이 차이를 인정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죄와 악을 동일시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해서라도 다음 세상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나이의 스구로로서는 구원의 길을 반드시 찾아야 했다<sup>13)</sup>. 그런데 사실 구원의 징조는 스구로의 그러한 의지 이전에 이미 와있었다. 스구로는 고바리한테 한참 쫓기고 있을 무렵, 불현 듯 인생의 무언가를 정리해야지 이렇게 죽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때 미스터리 같은 빛이 나타나 스구로를 따듯이 감싼 이후 몇 번인가에 걸쳐 무어라 형용하기 어려운 ‘빛’이 이

13) 엔도는 노인이 되어서 다음 세상에 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실상을 성찰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시련이 있다고 했다. 「老年というのは、美しい熟年なんてものではなくて、いやらしく苦しくて、醜い部分が沢山あるわけだ。なぜいやらしくて醜いかというと、次の世界へ行く準備で、通過儀礼だと思うんだ。通過儀礼というのは試練を受けなくてはならないからね。」(笠井秋生(2014) 「『スキャンダル』から『深い河』へ」 『遠藤周作研究』7, 遠藤周作研究会事務局, p54, 재인용)

야기 속에 등장하면서 평화를 느끼게 했다. 이 빛이 다른 아닌 엔도가 말하려는 구원의 ‘빛’이다.

そこには明らかに彼を捉えようとする意志が感じられたが、ふしぎなことにその意志には悪意も敵意もまったく感じられず、それどころか、全身を深みのある、柔らかな光で包まれた瞬間、言いようのない安らぎを五感に感じた。(206)

거기에는 분명히 그를 잡으려 한다는 의지는 알 수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의지에서 악의나 적의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온몸이 아주 깊으면서도 부드러운 빛으로 감싸이는 순간, 말할 수 없는 평화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었다.

때로 이 ‘빛’은 가로등빛으로 나타나 자신을 감싸주기도 하고, 잠이 오지 않아서 눈을 감고 있을 때 눈앞에 오렌지색 빛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어머니의 태 안에 있는 꿈에서는 그대로 있으면 사산된다면서 아내가 출구로 나가라고 외치고 있었고, 공포의 순간에 자궁 입구에서 그 ‘빛’이 보이기도 했었다. 아내가 들었다는 임사체험 이야기에서도 오렌지색 빛이 나온다. 지금 스구로에게 있는 것은 그러한 ‘빛’이 추악한 자신도 감싸주었으면 하는 절박한 바램뿐이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로 극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의미이다. 사진을 찍은 고바리로부터 크리스천 작가라는 주제에 뒷구멍에서 미성년자나 농락하고 다닌다면서 기사화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스구로에게 어떤 두려움이나 동요 같은 것은 일지 않았다. 어떤 변명도 허용될 수 없기에 고바리의 조치에 대해서는 완전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 또 이제까지 쌓아온 작가로서의 명예도 포기할 수밖에 없음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다만 얼마 남지 않은 인생길에서 알게 된 추악한 자신에게도 지금까지 믿고 써왔던 대로 구원의 빛이 임해주었으면 하는 작은 희망만을 붙들고 싶을 뿐이다.

老いれば老いるほど心は次の世界の投影に敏感になるのだが、今の僕に展げられたこの醜悪の色の世界も次の世界に行くための通過儀礼であり準備なのだろうか。醜悪世界は、何を教えようとしているのだろうか。それがまったくわからないのだ。ただぼくのかすかな希望は、その醜悪世界をも光が包んでくれ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だ。(279)



늡으면 늡을수록 마음은 다음 세상을 투영하는 데 민감해진다고 하는데, 지금의 나한테 펼쳐진 이 추악한 색깔의 세계도 다음 세상으로 가기 위한 통과 의례이며 준비일까. 이 추악한 세계가, 무엇을 가르쳐주려는 건지 그것을 전혀 모르겠다. 그저 나의 아련한 희망은 이 추악한 세계도 빛이 감싸주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아무 것도 모르는 아내에게는 미안했다. 물론 여자의 욕감이라는 것이 있어 자기에게 무언가 숨기는 것 없느냐고 몇 번인가 물어오기도 했지만, 어느 날 이 스캔들의 기사가 잡지에 실리고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아내가 겪어야 할 충격은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아내가 결국 용서해 주리라고는 생각한다. 하지만 이 나이에 욕망에 사로잡혀 아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추악한 자신과 대면하게 되리라고는 스구로 자신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결과만 기다릴 뿐이다.

마침내 스구로는 출판사 사장의 연락을 받고 만난다. 이미 체념한 상태라서 어떤 결정이든 받아들일 자세는 되어 있었다. 사장은 고바리가 가져온 사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출판사에서 사진과 필름 모두를 사서 불태워버렸으니, 모든 것을 잊으라고 한다. 크리스천으로서 엔도가 이 작품을 통해 꼭 남기고 싶어 한 메시지가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죽어 사람을 그 끈질긴 악으로부터 구해준, 즉 엔도가 말하는 X라는 사람의 이야기다<sup>14</sup>). 이것은 자기 안의 또 다른 자기로 인해 로마서 7장 24절에서 탄식하며 절규하던 바울이 바로 이어서 25절에서 그의 신에게 감사할 수 있었던 배경과 정확히 오버랩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롬7:25)

사장과 헤어져 출판사를 나오는 스구로의 모습에서 독자들은 많은 것을 공감하게 된다. 그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스구로 무의식 속의 그림자까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비웃으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기에 언제든지 또 다시 유혹할 수 있다.

14) 遠藤周作(1988), 『私の愛した小説』、新潮社, p167

こういう結果になるとは考えもしなかったが、されとて救われたという気持はまったく起らない。写真とネガは焼き捨てられた。でもあの男が焼き捨てられたのではない。男は勝呂のなかで生きている。うすら嗤いをうかべて。(289)

결과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사진이나 필름은 모두 불에 탔다. 하지만 그 사내가 불에 타 없어진 건 아니다. 그 사내는 스구로 안에 여전히 살아있다. 비웃으면서 말이다.

한 가지 스구로에게 바뀐 것이 있다. 생각이다. 자신이 만일 옛날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길거리에 있었다면 틀림없이 자신도 그의 고통에 쾌감을 느꼈을 거라고. 자신도 그때 거기에 있던 군중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는 자기인식이다. 악은 실존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안다. 바꿔 말해 그 악의 유혹에서 쉽게 벗어날 수 인간은 없다. 소설 마지막에서 한밤중에 끝없이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는 인간의 나약함과 무력함을 잘 알고 끝없이 인간을 시험하는 뿔을 상징한다. 가와이 하야오(河合隼雄)는 『스캔들』을 인간의 합리적 사고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미스터리로 규정하나<sup>15)</sup>, 사실인즉 미스터리가 아니라 자기 내면에 대한 숨김없는 성찰과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성서의 이야기다. 자신에 절망하고 신을 찾았을 때 비로소 구원이 임한다는 타력구원으로써의 기독교 구원관을 소설화시켰다는 것은 이러한 연유에 기인한다. 엔도는 이것을 쓰고 싶어서 많은 독자를 잃을 수 있는 위험까지도 감수했다고 볼 수 있다.

## 5. 나가기

본 논문에서는 엔도의 『스캔들』을 성서적 관점에서 고찰했다. 그 배경은 소설의 플롯이 신약성서 로마서 7장에 나타난 대로, 자신의 이중성에 대한 바울의 탄식 및 타력종교로써의 기독교 구원관과 일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선 예수의 사도로서 기독교 교리를 세우고 기독교의 세계화에 절대적 역할

15) 河合隼雄(1986) 「遠藤周作 「スキャンダル」を読む」 『世界』, 岩波書店, p.225

을 감당했던 바울과 기독교의 불모지 일본에서 한 평생 기독교 신앙적 주제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크리스천 작가로 확고한 위치를 확보했던 주인공 스구로가 유사했다. 그리고 두 인물이 탄식하는 원인이 유사했다. 밖에서 보이는 외적 정체성과는 별개로 자신의 내면에 깊이 숨겨진 스스로 혐오할만한 또 하나의 자아로 인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두 인물이 자신의 정체성을 놓고 탄식했던 시기가 유사했다. 바울의 탄식이 그의 사역 거의 정점에서 일어났다면, 스구로의 탄식 또한 그의 인생 시계가 65세라는 황혼녘을 가리키는 시점에서였다. 결국 이것은 뉘미라는 것이 있어서 대상이 누구이든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과 인간 스스로는 그 악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이것을 구원이라 하는데-실존의 한계를 깨닫고 절망할 때에 신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했다. 때문에 성서의 관점에서 『스캔들』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크리스천 작가 엔도가 신앙여정에서 깨달은 실존적 존재로서 인간의 실상과 타력구원이라는 기독교의 구원관을 소설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遠藤周作(1988) 『私の愛した小説』, 新潮社, p167  
 笠井秋生(2014) 「『スキャンダル』から『深い河』へ」 『遠藤周作研究』7, 遠藤周作研究会事務局, p.54  
 加藤宗哉(2006) 『遠藤周作』, 慶応義塾大学出版会, p.209  
 河合隼雄(1986) 「遠藤周作『スキャンダル』を読む」 『世界』, 岩波書店, p.225  
 川島秀一(1993) 『遠藤周作 愛の同伴者』, 和泉書店, p.220  
 金恩映(2002) 「『スキャンダル』の分析心理学的理解」 『言葉と文化』3, 名古屋大学大学院 国際言語文化研究科 日本言語文化専攻  
 佐藤泰正(1986) 「スキャンダル」, 『解釈と鑑賞』, p.664  
 西谷博之(1997) 「スキャンダル」, 『遠藤周作—その文学世界』, 国研出版, p.264  
 山根道公(2001) 「『スキャンダル』の原題『老いの祈り』の意味するもの」 『三田文学』80(67), 慶応義塾大学出版会, p.66

논문 투고 일자 : 2017. 03. 24.
논문 심사 일자 : 2017. 05. 10.
게재 확정 일자 : 2017. 05. 10.

## ＜要旨＞

## 聖書の観点から見た遠藤周作の『スキャンダル』

安増 煥

遠藤周作の『スキャンダル』はパウロの新訳聖書の『ローマの信徒への手紙』の7章を小説化させたものと見られる。『ローマの信徒への手紙』の7章でパウロは、善をなそうと思う自分にはいつも悪が付きまわっていると嘆く。遠藤が語りたかったのは、その悪から自由になれる人は誰一人い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救いはもっぱら神の恵みによるもので、人間の努力だけでは絶対届かないというわけである。『スキャンダル』の主人公勝呂は日本で有名なクリスチャン作家である。そんな彼が歓楽街で女たちと遊んでいるという醜聞が漂っていることで、彼はその噂が嘘であることを確かめにしなくてはいけなかった。しかし、分かったのは自分の中に抑えきれない悪が存在するという醜い実状だけだったので絶望する。全てのことを失う危機にあって、初めて神を求める。しかし、神は予め彼のための救いの道を用意しておいたのだ。

## Endo Syusaku's 'SCANDAL' from the biblical point of view

An, Jeong-whan

The Endo's 'SCANDAL' can be said to have fictionalized Chapter 7 of Romans of Paul (the Apostle). In Chapter 7 of Romans, Paul laments that when he wants to do good, evil is right there with him. This means that no one is free from the evil. Salvation can be achieved only through the grace of God, but not at all through human efforts. SUGURO, a hero of 'SCANDAL', is a famous Christian writer in Japan. Such SUGURO had to prove false the public scandal that he played around with women in red light district. He laments that what he found out is ugly truth that there is uncontrollable evil in himself. When he is in danger of losing everything, at last he desperately needs God. However, God has already opened the door of salvation.